

회 개(悔改)

마가복음 1 : 14-15

이 명 직

1.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 함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중에서 생활하다가 장차 맞게 될 형벌을 깨닫고, 슬픈 마음으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정의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땅히 회개하여 돌이켜 모든 죄를 떠나라” (계 8 : 20) 하셨다. 마치 남의 아내된 여인이, 나쁜 사람의 꼬임에 빠져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죄악의 생활을 하다가 자기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 불의하게 만난 남자를 버리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가르친다. 다시말하면 그 생애의 방향을 고침이

니, 가령 태양을 등지고 북쪽을 향하여 가던 사람이 **회**-돌아서서 가던 길을 버리고 남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과 같다. 만일에 회개하였다 하는 사람이 여전히 행위를 고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한다면 이는 회개가 아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그 우상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버리고(살전 1 : 9), 술을 마시던 사람은 그 술을, 담배를 피우던 사람은 그 담배를, 음행하던 사람은 그 음행을, 거짓말 하던 사람은 그 거짓말을, 첩을 두었던 사람은 그 첩을, 술장사 하던 사람은 그 술장사를, 부인을 때리던 사람은 그 불법함을, 시비와 다툼을 좋아 하던 사람은 그 시비와 다툼

을, 곧 일체 죄악에 관계되는 행동을 아픈 마음으로 버리고, 다시 그런 행위를 아니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다.

2.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행 17:30) 하셨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겔 18:30-32),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로부터는 더욱 회개에 대하여 엄숙하게 명령하셨으니, 누구든지 순종하여 이 생명을 받아야 한다. 혹은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요, 결코 회개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고 회개하는 사실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구약 율법시대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였거니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인 즉,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므로 회개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는 사람에게 회개를 말하면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아니 한 즉 회개를 강단에서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이와같이 반대하는 사람은 확실히 회개한 경험이 없이 세례받고 신자가 된 사람이며, 신학 공부하여 교역자가 된 것이 분명하다. 이와같이 말하면, 회개의 경험이 없는 신자

나 교역자는 극렬 반대할 줄로 아나. 그러나 회개치 못한 사람은 회개에 대하여는 의례히 반대하는 법이니까 설혹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조금도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여 가는 것은 회개한 신자가 적은 연고이며, 회개한 신자가 적은 것은 교역자가 강단에서 회개를 바로 가르치지 아니 한 연고이다. 그리고 교역자가 강단에서 회개를 바로 전하지 아니 하는 것은, 자기는 여러가지 이유를 붙이겠지만 실상은 교역자 자신이 회개의 문을 지나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와 교회에서 역사하는 연고이다. 그러나 회개하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3. 회개는 전도의 대강령

죄인에게 회개를 가르치는 것은 전도의 정칙(正則)이다.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 하면 완전한 신앙이 생기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예수가 구주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없으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불가불 회개를 분명히 전할 필요가 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요한의 전도의 일성(一聲)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

누가 말하기를 "어찌 회개를 먼저 할 수 있느냐. 믿은 후에 회개하게 된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지 믿고 회개하라는 구절은 한 곳도 없다. 또 실례를 가지고 보아도 교회에 10년을 출석하였다 하여도 완전히 회개한 후에야 비로써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구원의 자각을 얻게 된다.

2) 였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 1 : 15) 하였고, 또 일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 하면 이와같이 망하리라" (눅 13 : 3) 하셨으며, 사도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행 2 : 37) 하였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행 20 : 21) 하셨으니, 전도의 대강령은 회개이다. 고로 회개가 없는 전도는 탄환(彈丸) 없는 총과 같다. 그러므로 순복음으로 전도하려면 먼저 회개를 가르쳐야 한다. 회개는 집에 주초석(柱礎石)과 같아서 주초(柱礎)가 견고하면, 건축도 견고하고, 주초가 불완전하면 건축도 완전치 못하다. 이와같이 회개는 신앙의 기초이니 회개가 완전하면 신앙도 완전하고, 회개가 불완전하면 신앙도 불완전하다.

누가 말하기를 "어찌 회개를 먼저 할 수 있느냐, 믿은 후에 회개하게 된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지 믿고 회개하라는 구절은 한 곳도 없다. 또 실례를 가지고 보아도 교회에 10년을 출석하였다 하여도 완전히 회개한 후에야 비로써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확실한 구원의 자각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도 회개를 가르치고, 박사 앞에서도 회개를 가르치고, 모든 죄인들 앞에서도 회개를 가르치기를 주저치 말 것이다.

4. 회개의 필요

회개가 완전치 못하면 구원이 완전치 않고, 구원이 분명치 못 할 때에는 편안함이 없어, 때때로 이전에 범한 죄가 기억될 때에는 마음 속에 큰 고통이 생기게 되며, 때때로 마귀의 위협을 받게 된다. 죄인이 죄를 범한 후에는 마귀는 자주 찾아 와서 두렵게도 하고 낙심케도 한다. 그러나 한번 그 죄를 완전히 회개한 후에는 마귀가 다시 와서 고통을 주지 못한다. 또한 회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제일의 문이다. 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 7 : 13) 하심은 곧 "회개하라" 하

시는 뜻이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짐이나 물건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없다. 고로 회개하고 구원얻는 문을 좁은 문이라 하였다. 그런고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 하고 다른 곳으로 들어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 (요 10 : 1) 하셨다. 물론 회개치 아니 하여도 세례문답집이나 암기하면 세례도 받을 수 있고, 지적인 성경 공부만 하고도 교역자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주님을 만날 때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 “많은 사람이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 한 것을 보고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던지라” (마 22 : 11-14)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에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으나,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면 그 중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 하고 담을 넘어 들어온 자 즉 회개치 아니 한 자를 그와같이 결박하여 대환란 중에 던지실 것이니 두렵지 않는가. 집을 세우려면 터를 잘 다져야 함과 같이 구원을 얻으려면 회개가 명백하여야 할 것이다.

5. 회개와 자복

회개라함은 자기가 전에 범한 죄가 잘못 된 줄로만 알고 혼자 누우치는 것만이 아니다. 그 죄악을 일일이 말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 속에 완전한 안심을 얻으려면 자복하는 것이 제일의 첩경이다. 마치 관격(關格)된 사람이 해가히 소화될 약이나 진통된 약을 마시겠는가. 즉시 손가락을 목 안에 넣어서 체한 것을 토하면 그만 그치는 것과 같다. 그 죄를 자복함은 겸손의 표시니 잠언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 28 : 13) 하셨다. 회개할 때에는 그 죄목을 반드시 자복할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할 때에, 그 저 나는 죄인올시다 하는 사제가 있으나, 이는 너무나 모호하고 애매한 자복이다. 또한 자복할 때에 말하기 쉬운 것, 즉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과 속인 것 몇 가지나 말하고는 자복하였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완전한 자복이 아니라 거짓 자복이라 할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실로 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는 자복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실로 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하는 자복은,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배속에 남아(男兒)가 있으면 남아를, 여아(女兒)가 있으면 여아를 낳으며, 그 있는 그대로 쌍태(雙胎)면 쌍태를, 삼태(三胎)면 삼태를 낳는 것과 같이...

같다. 여인이 해산할 때에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배속에 남아(男兒)가 있으면 남아를, 여아(女兒)가 있으면 여아를 낳으며, 그 있는 그대로 쌍태(雙胎)면 쌍태를, 삼태(三胎)면 삼태를 낳는 것과 같이 간음(姦淫), 절도(竊盜), 강도(強盜), 사기횡령(詐欺橫領), 살인죄(殺人罪)가 있을지라도 그대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자복하는 것이 참 자복이다. 이와 같이 말하면, 회개도 자복도 못한 생동 생동한 설익은 교인은 말하기를, 그것은 너무도 심하다고 할런지 모르나 그러나 자복은 성서적이다.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에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고(마 3: 6), 사도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하였으며(행 19: 18), 사도 요한도 "죄를 고하라" (요일 1: 9) 교권편하였으니 누가 감히 자복하는 일을 아니라 하겠는가.

또 자복이라함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표시니,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과 같이 모든 죄악을 정직하게 자복함으로 비로소 그 죄악은 생명을 잃어 버리게 되고, 마귀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며 그 뿐 아니라 다음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우라도 나의 자복한 것을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될 것이요 또한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변호하실 것이다.

6. 회개의 열매

회개 할 때에는, 그 잘못된 것을 깨닫거나 자복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고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 3: 8) 하였다. 그 열매라함은 형제에게 원수맺은 것이 있으면, 주 앞에 죄된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그 잘못된 것을 그 앞에서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며, 또 남에게 빌린 돈이나, 그외에 불의하게 취득한 금전이 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그 금전을 돌리든지, 당장에

는 금전이 없어서, 혹은 빈궁하여서, 사실로 돌려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자복하는 동시에 용서라도 받아야 할 것이다. 또는 사람의 물건을 빌려다 쓰고 어떻게 하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그대로 자신의 물건을 삼은 일이 있다면 마땅히 어린 시절에 된 일이든지, 어른이 된 후에 된 일이든지 물론하고 정직하게 그 물품은 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심지어 바늘 한 개, 연필 한 자루, 책 한 권, 삐스표 한 장, 엽서 한 장이라도 불의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돌려보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참된 회개의 열매이다. 그러나 마음에 어지간한 감동이나 받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아직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원에 이를만한 회개라고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죄에 대하여 깊은 감각과 통절히 미워하는 마음이 부족한 고로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부끄러워 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과연 임하셔서 부서진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나, 또는 내가 이 죄를 자복함으로 다른이에게 부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자기의 명예나 위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남에게 부덕이 되겠

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은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체면을 돌아본 중에, 사단에게 속아서 정의에 대한 용기를 상실한 사람이다.

7. 회개의 결과

참된 회개의 결과는 두 방면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에게 있고, 둘째는 타인에게 있다. 자기에게 있는 결과는 곧 안심이다. 완전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첫째 구원의 확증이 없으며,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참된 감사도 없으며, 설교를 들어도 설교자가 회개를 가르친다든지 죄를 공격하는 경우는 심히 불쾌한 감정을 갖는다. 또 어떤 때에는 죄가 마음을 자극하여 은근한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이는 회개치 못한 죄가 마음에서 운동하는 연고이다. 이것은 마치, 지중해의 한 물고기가 배에서 던진 별미를 받아먹은 후 그 별미가 뱃속에서 "오, 주여 주여" 하며 요동하는 바람에 몹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그 별미를 입밖으로 토해내버리고 나서야 평안을 얻은 것과 같다. 그 별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 요나였다. 그런 즉 사람마다 마음에 완전한 평안을 얻지 못하는 죄를 토하지도 회

성령께서 과연 임하셔서 부서진 심령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마음이나, 또는 내가 이 죄를 자복함으로 타인에게 부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없다. 자기의 명예나 위신도 돌아보지 않는다. 남에게 부덕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은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체면을 돌아본 중에, 사단에게 속아서 정의에 대한 용기를 상실한 사람이다.

개치도 아니한 연고이다. 진심으로 죄만 회개하면 마치 구름과 안개가 벗겨지고 푸른 하늘에 밝은 태양이 나타나듯 심령에 새로운 빛이 비취오며, 하나님의 존재가 명백하여지며, 불꽃같은 신앙이 솟아나며, 십자가의 보혈이 감사하여 찬송이 저절로 나며, 증거할 열심이 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벗어 놓은 것과 같이 가벼운 감정이 되어 공중에까지 뛰어 오를 듯 하게 된다. 이것은 참된 회개의 결과이다. 이것이 심령 상에 일대 과도기라 할 수 있다. 둘째로 회개하면 그 결과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심히 크니 혹은 말하기를 '회개하면 남에게 부덕이 되느니' '오히려 주께 욕이 되느니'하고 여러가지 추측이 많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요, 실상은 회개의 경험이 없어 결국은 회개하기가 싫으니까 핑계대려는 말에 지나지

않는 가치없는 빈말이다. 사실인 즉 그 사람들의 공론(空論) 보다 적은 사례를 들어 말하면, 어떤 형제는 이웃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다가 줄 때에 정직하게 하지 아니하고 얼마를 떼어 먹고 속인 일이 있었는데 그후에 그것이 성령의 빛이 비취을 때에 회개 자복하지 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날에 속인 일을 일일이 자복하고 그 돈을 다시 받으라고 되돌려 준 즉 그 사람은 심히 부끄러워 하며 말하기를 '나도 그와같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회개한 사실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계모의 불공평한 대우를 항상 원망하다가 성령의 인도로 참되게 회개함으로 그 계모도 감동을 받아 완악한 심사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일도 있었다. 어찌 그와같은 사례를 다 들어 말 할 수 있겠는가. 회개는 구원을 얻는 첫째의 문이다. **☞**

〈본고는, 이명직 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현대적 표현으로 옮긴 것이다(편집자 주)〉